DOI http://dx.doi.org/10.22912/dgsh.2023..76.173

〈일반논문〉

# 唐 憲宗代 昭義 平定의 의의

정 병 준 *

〈목차〉

Ⅰ. 머리말
Ⅱ. 憲宗의 昭義 平定과 都將 烏重胤의 귀순
Ⅲ. 제2차 成德 토벌과 昭義의 역할
Ⅳ. 淮西·平盧 토평과 烏重胤의 활약
Ⅴ. 맺음말

[국문초록]

昭義는 양면성을 가진 번진이었다. 즉 그 지리적 입지와 용맹한 병사를 기반으로 자칫하면 '할거 번진'을 모방하려고 하였지만, 반대로 조정의 명이 미칠 때는 할거 번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憲宗의 번진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 昭義節度使 盧從史는 전자를 지향하다가 당군의 은밀한 계책으로 사로잡혀 제거되었다. 이후 소의는 조정에 순종하는 번진이 되어 헌종의 번진개혁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에는 헌종이 노종사를 제거하면서 얻은 소의의 인적 자원, 특히 烏重胤의 활약도 주목된다. 만약 노종사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소의는 번진개혁의 장애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조가 오중윤과 같은 장수와 '용맹한 병졸'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글에서 가장 유의하고 싶은 것은 헌종의 번진개혁에 보이는 개별 사건들의 연동성이다. 즉 헌종의 번진개혁은 각 사안 별로 개별로 진행된 것도 있고 서로 연동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소의의 평정은 후자의 측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 주제어
당 헌종, 소의, 노종사, 성덕, 회서

## I. 머리말

헌종은 永貞 원년(805) 8월 즉위한 직후부터 번진개혁에 나서 새로 반역을 일으킨 번진들을 차례로 평정해 나갔다. 즉 ① 같은 달 西川節度使 韋皐가 죽고 劉闢이 스스로 留後(즉 임시 책임자)에 올라 반역을 일삼자 이듬해인 元和 원년(806) 정월 토벌을 명해 9월 평정하고, ② 그 사이인 같은 해(806) 3월 夏綏의 楊惠琳이 반란을 일으키자 같은 달 평정하고, ③ 원화 2년(807) 10월 鎭海節度使 李錡가 반란을 일으키자 같은 달 평정하였다.[1)]

하지만 헌종은 그 여세를 몰아 스스로 번진을 세습하며 조정의 통치를

1)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唐代藩鎭の成立と盛衰』(『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第1卷, 三一書房, 1980), 99~100쪽;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2, 2003, 193~194쪽; 정병준, 「唐 憲宗 초기 淮西 藩鎭의 地域割據 −吳少誠의 행동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35, 2021, 64~69쪽.

거부하던 이른바 '割據 藩鎭'를 토벌하였으나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화 4년(809) 10월과 원화 11년(816) 정월 각각 개시된 成德의 王承宗에 대한 두 차례의 토벌인데, ①~③의 경우와는 달리 두 차례 모두 실패로 끝났다.[2] 또 원화 10년(815) 정월부터 淮西의 吳元濟를 토벌하였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쳤던 것이다.[3] 하지만 원화 12년(817) 10월 회서 토벌이 성공을 거두자 형세가 바뀌어 마침내 번진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

'昭義 평정'이란 첫 번째 왕승종 토벌이 전개되던 중에 昭義節度使 盧從史가 불순한 행동을 보이자 헌종이 그를 포획하여 소의를 순종하는 번진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4] 소의는 안사의 난 말기에 반란군의 薛嵩이 항복하면서 생겨난 河北 번진 중의 하나로 반역과 순종을 반복하였다.[5] 소의는 지리적으로 할거 번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후 성덕 토벌 등에 직접 활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헌종대 번진개혁의 연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소의 평정의 의의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즉 헌종의 번진개혁은 각 번진을 상대로 별개로 진

2) 정병준, 「唐 憲宗의 藩鎭改革과 成德節度使 王承宗」, 『동국사학』 75, 2022, 198~208쪽.

3)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66, 2022, 208~231쪽.

4) 찰스 피터슨, 「중흥의 완성 : 헌종과 번진」,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위진수당사학회 역, 『당대사의 조명』, 아르케, 1999, 218쪽.

5) 森部豊, 「安史の亂の終熄と昭義の成立」, 『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歷史的展開』, 關西大學出版部, 2010(원래는 1994); 森部豊, 「昭義を通して見た唐朝と河朔三鎭との關係」(上同. 원래는 2002); 張正田, 『「中原」邊緣 : 唐代昭義軍研究』, 稻鄕出版社, 2007, 167~200쪽; 陳翔, 「唐代後期澤潞鎭軍事地位的變化」, 『中國歷史地理論叢』 2008-3; 陳翔, 「唐代澤潞鎭建置及擴建考」, 『江西社會科學』 2013-2 등.

행된 것도 있지만, 서로 연동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다. 소의의 평정은 후자의 측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Ⅱ. 憲宗의 昭義 平定과 都將 烏重胤의 귀순

헌종은 즉위 초기에 반역 번진들을 차례로 토벌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다만 그들은 할거 번진이 아니라 모두 새로 반역을 꾀한 번진들이었다. 그런 중인 원화 4년(809) 3월 鎭·冀·深·趙·德·棣 6주를 관할하는 성덕절도사 王士眞이 죽고 장자인 副大使 王承宗이 스스로 번진을 계승하여 조정에 승인을 청하였다. 그러자 헌종은 조정에서 절도사를 제수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고 하였지만, 재상 裴垍[6]와 李絳[7] 등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8]

헌종은 타협책으로 왕승종을 절도사에 임명해주는 대신에 덕·체 2주를 분리시켜 별개의 번진을 만드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왕승종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같은 해(809) 10월 左神策軍護軍中尉 吐突承璀를 左右神策·河中·河陽·浙西·宣歙等道行營兵馬使·招討處置等使에 임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다.[9] 하지만 왕승종에 대한 토벌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듬해(810) 7월에 이르러 왕승종을 사면하고 성덕절도사에 임명해

6)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3년 9월 조, "以戶部侍郎裴垍爲中書侍郎·同平章事"(426쪽); 『자치통감』 권237, 원화 3년 9월 조, 7654쪽.
7)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6년 12월 조, "制以朝義郎·守尙書戶部侍郎·驍騎尉·賜紫金魚袋李絳爲朝議大夫·守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438~439쪽).
8) 정병준, 「唐 憲宗의 藩鎭改革과 成德節度使 王承宗」, 191~197쪽.
9)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79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10월 조, 7665~7667쪽.

주었다.[10] 이듬해인 원화 7년(812) 8월 이강이 헌종에게 한 말을 보면 "전해에 성덕을 토벌하면서 사면에서 20만을 동원하고 두 신책병이 경사에서 달려가니 천하가 騷動하고 비용이 7백여 만 緡이 들었으나 결국 공을 이루지 못하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11] 라고 한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불온한 태도를 보이던 소의절도사 노종사의 포획이 그것이다. 그의 선조는 北魏 이래 관직에 오른 자가 매우 많았고 부친 盧虔은 어릴 때 고아가 되었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進士에 합격하고 御史府三院, 刑部郎中, 江州·汝州刺史, 祕書監을 역임하였다.[12] 노종사는 젊을 때 무력을 숭상하여 騎射를 익히고 澤潞(즉 소의) 지역을 유력하던 중 절도사 李長榮에게 기용되어 大將이 되었다.[13] 얼마 후 이장영이 죽자 노종사는 당시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절도사에 올랐다.[14] 즉 『구당서』 권132, 노종사전에 의하면 "德宗 중기에 節制를 임명할 때마다 반드시 그 군인들의 마음이 향하는 자를 물어서 찾게 하였는데, 이장영이 죽자 노종사는 軍情에 의지하고 또 中使를 잘 奉迎하여 소의군절도사에 제수되었다"(3652쪽)라고 한다. 당시 소의절도사는 澤·潞·邢·洺·磁 5주를 관할하였다.[15]

---

10)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5년 7월 조, 431쪽;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80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7월 조, 7677~7678쪽.

11) 『자치통감』 권238, 원화 7년 8월 조, 7693쪽; 『《李相國論事集》校注』 권5, 「論魏博」, "且討伐鎭州之時, 四面興師近二十萬衆, 幷發兩神策近遠赴河北, 道路騷擾, 靡費七百餘萬貫, 訖無功, 取笑天下. 失策之恥, 傳之至今"(華中科技大學出版社, 2015, 169쪽).

12) 『구당서』 권132, 노종사전, 3652쪽; 『신당서』 권141, 노종사전, "其先在元魏時爲盛族, 後徙籍不常. 父虔, 好學, 由進士第歷御史·祕書監"(4660쪽).

13) 『구당서』 권132, 노종사전, 3652쪽. 한편 『신당서』 권141, 노종사전, 4660쪽에서는 '督將'이 되었다고 한다.

14) 『樊川文集校注』 권11, 「上李司徒相公論用兵書」, 巴蜀書社, 2007, 768~769쪽에 자세하다.

15) 吳廷燮 撰, 『唐方鎭年表』 1, 昭義, 中華書局, 1980, 480~481쪽.

노종사는 소의절도사가 된 후 점점 방자해져 할거 번진들을 모방하려고 하였다. 즉『구당서』권104, 孔戡傳에 의하면

> 점점 교만해져 王承宗·田緒[16]와 몰래 連結하며 河朔의 일을 모방하여 그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4097쪽).[17]

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점차 매우 방자하고 不道해져 部將의 처첩을 빼앗고 교묘한 말로 분식하며 잘못된 이치를 강요하였다. 從事 공감 등이 직언을 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떠나갔다"[18] 라고 한다.

원화 3년(808) 노종사가 부친상을 당하여 아직 起復(즉 관직에 복귀)하지 않은 이듬해(809) 3월 성덕의 왕사진이 죽고 왕승종이 뒤를 이어[19] 조정과 대립하자 4월 노종사가 몰래 왕승종을 주살할 계책을 헌상하여 황제의 뜻에 영합하였다. 그러자 헌종은 노종사를 기복시키고[20] 같은 해(809) 10월 토돌승최에게 왕승종을 토벌하게 하였던 것이다.[21] 그때 노종사도

16) 田緒가 魏博節度使로 있었던 것은 德宗 興元 원년(784) 4월부터 원화 12년 4월까지이다. 吳廷燮 撰,『唐方鎭年表』1, 魏博, 603~604쪽 참조.

17)『신당서』권163, 공감전, "益驕, 與王承宗·田緒陰相結, 欲久連兵以固其位"(5012쪽).

18)『구당서』권132, 노종사전, 3652쪽;『구당서』권104, 공감전, "盧從史鎭澤潞, 辟爲書記. …… 戡每秉筆至不軌之言, 極諫以爲不可, 從史怒. 戡歲餘謝病歸洛陽. 李吉甫鎭揚州, 召爲賓佐. 從史知之, 上疏論列, 請行貶逐. 憲宗不得已, 授衛尉丞, 分司洛陽"(4096~4097쪽);『신당서』권163, 공감전, "盧從史自別將代之, 留署掌書記. …"(5012쪽).

19)『신당서』권7, 헌종본기, 원화 4년 3월 조, 210쪽;『자치통감』권237, 원화 4년 3월 조, 7657쪽.

20)『구당서』권132, 노종사전, 3652쪽.

21)『구당서』권14, 헌종본기상, 원화 4년 10월 조, 428~429쪽;『구당서』권142, 왕승종전, 3879~3880쪽;『신당서』권7, 헌종본기, 원화 4년 10월 조, 211쪽;『자치통감』권238 원화 4년 10월 조, 7666~7667쪽.

토벌의 명을 받아 출전하였지만, 원화 5년(810) 3월에 이르도록 군대를 전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왕승종과 몰래 내통하며 당군의 진격을 방해하였다.[22] 즉 『신당서』 권141, 노종사전에 의하면

> 조서를 받들어 賊을 토벌하였으나 병사를 제어하여 머물면서 몰래 왕승종과 통교하며 그 암호를 얻어 軍中에 알리고 또 마초·식량의 가격을 높게 하여 度支에 팔았다. 그리고 上書하여 宰相 [지위]를 겸하길 요구하고 또 諸軍이 賊과 내통한다고 무고하여 병사들이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헌종이 근심하였다(4660~4661쪽).[23]

라고 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노종사가 "마초·식량의 가격을 높게 하여 度支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정이 토벌군을 동원하였을 때 현지에서 마초와 군량을 조달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번진이 토벌을 위해 경계를 벗어나면 매월 다량의 '食出界糧'를 지급받았지만,[24] 노종사는 그것과 더불어 마초·식량을 팔아 이익을 취했던 것이다. 즉 노종사는 이익을 위해 왕승종 토벌전을 철저하게 이용하였다고 하겠다.

같은 달(원화 5년 3월) 헌종이 재상 배기의 계책을 받아들여 토돌승최에게 노종사를 사로잡게 하여[25] 4월 생포하였는데,[26] 『신당서』 권141, 노종사전에 의하면

---

22)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3월 조, 7673쪽.
23) 『구당서』 권132, 노종사전, 3652쪽.
24) 末田修一, 「唐代藩鎭の出界糧について」, 『鈴木俊教授還曆記念東洋史論叢』, 大安, 1964, 327~328쪽;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224쪽.
25) 『자치통감』 권237, 원화 5년 3월 조, 7673~7674쪽.
26)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5년 4월 조, 430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4월 조, 7674쪽.

> 신책중위 토돌승최가 그와 마주하여 보루를 쌓았는데, 노종사가 때때로 그 군영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였다. 토돌승최는 寶帶와 奇玩을 많이 꺼내 그에게 자랑하였다. 노종사는 천성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였으므로 가지고 놀며 좋아하면 [토돌승최가] 반드시 주었다. 노종사가 기뻐하며 점점 친숙해져 의심하지 않았다. 황제가 裴垍의 모책을 채용하여 칙서를 내려 토돌승최에게 도모하게 하였다. 토돌승최가 壯士들을 막사 아래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그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장사들에게 갑자기 나와 잡아채게 하여 막사 뒤로 끌고 가 포박하여 수레 안에 넣었다. 수행자들이 놀라 어지러워지자 수십 인을 참살하고 密詔를 보이며 깨닫게 하였다(4661쪽).

라고 한다. 그때 토돌승최가 노종사를 쉽게 포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의의 都知兵馬使 烏重胤의 역할이 컸다. 즉 그는 3월부터 배기와 미리 내통한 상황에서[27] 4월 노종사를 사로잡을 때 동요하는 소의 병사들을 제압한 공을 세웠던 것이다. 『구당서』 권161, 오중윤전을 보면

> 토돌승최가 오중윤과 모의하여 노종사를 장막 아래[帳下]에서 포박하였다. 이날 오중윤이 계엄을 내리자 潞軍에서 감히 움직이는 자가 없었다(4223쪽).

라고 하고, 『구당서』 권132, 노종사전에서는 "都將 오중윤은 평소 忠順한 마음을 품었고 이에 그 군대에 계엄을 내리자 군인들이 감히 거동하지 못하였다. 밤을 틈타 빨리 달려가게 하니 미명에 경역을 나왔는데, 도로의

27)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3월 조, "會[盧]從史遣牙將王翊元入奏事, 裴垍引與語, 言爲爲臣之義, 微動其心, 翊元遂輸誠, 言從史陰謀及可取之狀, 垍令翊元還本軍經營, 復來京師, 遂得其都知兵馬使烏重胤等款要. 垍言於上曰, '從史狡猾驕很, 必將爲亂. 今聞其與承璀對營, 視承璀如嬰兒, 往來都不設備, 失今不取, 後雖興大兵, 未可以歲月平也', 上初愕然, 熟思良久, 乃許之"(7673~7674쪽).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3653쪽)라고 한다. 都將은 번진 병사를 총괄하는 도지병마사의 다른 명칭이다.[28)]

당시 소의 내부에는 오중윤과 마찬가지로 반역적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도 상당수 있었다. 즉 杜牧의 「上李司徒相公論用兵書」을 보면 "[노종사가] 表를 올려 기복을 청하였을 때 또한 단지 [3천] 義兒 만이 그것에 唱和하고 그 나머지 大將 王翼元·烏重胤·第五釗 등과 長行兵士는 모두 마음이 같지 않았다"[29)] 라고 한다.

같은 달(원화 5년 4월) 헌종은 조서를 내려 노종사를 포획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즉

> 때마침 常山(즉 성덕)이 난을 일으켰으나 조정의 명이 아직 행해지지 않았을 때 굳이 군대를 일으키길 청하고 구차하게 復位를 구하였다. …… 군사가 이미 출동하였음에도 敵을 보호하며 交通하고 사악한 계략을 행하며 전쟁에 임해서는 조정을 배반하였다. 諸侯들이 힘을 다했으나 호응하지 않았고 …… 하물며 근래에 上請하여 山東에서 就食하고 군대를 돌리게 하며 때에 맞춰 명을 받들지 않고 …… [幽州節度使] 劉濟의 굽히지 않는 忠正의 말에 의지하여 邪豎로 하여금 遲迴의 계책을 끊게 하였다. 게다가 이웃한 경역을 널리 훼손하고 몰래 事情을 疏하며 반복하는 것이 무상하였다. …… 가히 驩州司馬로 폄적한다.[30)]

---

28) 伊藤宏明, 「唐五代の都將に關する覺書(上)」,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38, 1992, 2~6쪽. 한편 『구당서』 권161, 오중윤전에는 당시 오중윤의 직명을 '潞州牙將'이라 하고(4223쪽), 『신당서』 권171, 오중윤전에서는 '潞牙將'이라고 하는데(5187쪽), 潞州 혹은 潞는 소의를 가리키고 아장은 牙軍의 지휘관을 가리킨다.

29) 『樊川文集校注』 권11, 「上李司徒相公論用兵書」, 769쪽.

30) 『구당서』 권132, 노종사전, 3853~3854쪽.

라고 하며 노종사를 환주사마로 좌천시킨 후 죽음을 내렸다.[31]

또 같은 달(4월) 헌종은 오중윤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소의절도사에 임명하려고 하였으나 재상 이강이 그렇게 하면 기강이 무너지고 또 할거 번진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하며 반대하였기 때문에[32] 오중윤을 懷州刺史·河陽三城節度使·兼御史大夫에 임명하고, 하양절도사 孟元陽을 노주자사·소의절도사에 임명하였다.[33]

하지만 5월 소의 병사 3천여 인이 밤에 흩어져서 할거 번진인 魏博으로 달아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34] 소의 관하의 명주가 예전에 위박에 속했던 것[35]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노종사가 義兒 3천을 양성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 숫자로 보면 위박으로 달아난 병사 3천여 인은 바로 이들일 수 있다. 하지만 노종사가 포박될 때 오중윤이 그들에게 禍福을 깨우쳐주자 모두 통제되었다고 하므로[36] 다른 병사들일 가능성도

31) 『신당서』 권141, 노종사전, 4661쪽.

32) 『신당서』 권152, 이강전, "絳曰, '澤潞據山東要害, 磁·邢·洺跨兩河間, 可制其合從. 今孽豎就禽, 方收威柄, 遽以偏將莅本軍, 綱紀大紊矣. 河南·北諸鎭, 謂陛下啗以官爵, 使逐其帥, 其肯默然哉? 宜以孟元陽爲澤潞, 而以重胤節度三城, 兩河諸侯聞之, 必欣然', 帝從之"(4838쪽); 『《李相國論事集》校注』 권5, 「澤潞低度사」, 99쪽.

33)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5년 4월 조, "以昭義都知兵馬使·潞州左司馬烏重胤爲懷州刺史·河陽三城懷州節度使, 以河陽節度使孟元陽爲潞州長史·昭義軍節度·澤潞磁邢洺觀察使. 戊戌, 貶前昭義節度使盧從史爲驩州司馬"(430쪽); 『韓昌黎文集校注』 권6, 碑誌, 「烏氏廟碑銘」, 上海古籍出版社, 1987, 395~396쪽; 『구당서』 권161, 오중윤전, 4223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4월 조, 7674~7675쪽 등.

34)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5년 5월 조, "乙巳, 昭義軍三千人夜潰奔魏州"(431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5월 조, "昭義軍三千餘人夜潰, 奔魏州. [호삼성 주: 潰奔者, 盧從史之黨也]"(7676쪽).

35) 『신당서』 권66, 方鎭表3, 魏博, 代宗 大曆 11년(776) 조, 1843쪽; 同, 澤潞沁, 德宗 建中 3년(782) 조, 1844쪽. 森部豊, 「昭義を通して見た唐朝と河朔三鎭との關係」, 272쪽 참조.

있다. 또 『신당서』 권156, 陽旻傳을 보면

> 邢州刺史가 되었다. 노종사가 포박되자 潞의 군대가 궤산하였는데, 노종사가 일찍이 자식[子]으로 대우한 驍卒 5천이 그에게 도망쳐 왔다. 양민이 성문을 닫고 들이지 않자 무리가 모두 곡하며 말하길 "우리는 우두머리를 잃었는데, 지금 公은 城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또 度支錢 백만이 府에 있으니 조금 내려주시면 천자에게 표를 올려 旌節을 청하겠다"라고 하였다. 양민이 화복을 말하고 돌려보내니 무리가 모두 깨닫고 마침내 軍으로 돌아갔다. 헌종이 가상하게 여겨 易州刺史로 승진시켰다(4900~4901쪽).

라고 하여 형주자사 양민에게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간 효졸 5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37] 다만 이들 역시 위박으로 달아난 병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소의 병사들의 동요와 궤산은 당시 소의의 반역적 성향이 강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런 만큼 오중윤의 공로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왕승종 토벌전은 이후에도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데,[38] 같은 해(810) 7월 왕승종이 헌종에게 표를 올려 허물을 노종사에게 돌리며 常賦를 상공하고 조정에서 官吏를 제수해 주길 청하겠다고 하고, 또 이사도 등도 자주 표를 올려 왕승종을 용서하길 청하자[39] 같은 달 헌종이 왕승종을 성덕절도사에 임명해 주었던 것이다.

---

36) 『樊川文集校注』 권11, 「上李司徒相公論用兵書」, "及至被擒, 烏重胤坐於軍門, 喩以禍福, 義兒三千, 一取約束"(769쪽).

37) 森部豊, 「昭義を通して見た唐朝と河朔三鎭との關係」, 275~276쪽 참조.

38)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時朝廷以承璀宿師無功, 國威日沮, 頗憂, 會承宗使至, 宰臣商量, 請行赦宥, 乃全以六郡付之"(3880쪽).

39)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7월 조, 7677쪽.

## Ⅲ. 제2차 成德 토벌과 昭義의 역할

소의는 會府가 河東의 潞州이고 관하에 하동의 澤州와 하북의 邢州·洺州·磁州를 관할하여 하북에 쐐기를 박은 형상이었기 때문에[40]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번진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당시 조정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재상 權德輿의 「昭義軍事宜狀」을 보면

> 澤潞는 원래 雄鎭이고 자·형·명은 여러 번진과 개 이빨과 같이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山東(즉 하북)의 풍속을 바꾸려면 먼저 소의의 帥를 임명[擇]해야 한다.[41]

라고 하고, 또 재상 이강의 「澤潞事宜」에서도

> 또 택로 5州는 山東의 要害에 의거하며 河北과 連結되어 있다. 단지 이 [택로]만이 그들을 견제[制]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형·명 3주가 그 腹內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기강이 所在하고 실로 안위가 달려 있는 곳이다.[42]

라고 한다.[43] 앞에서 본 제1차 성덕 토벌에서는 소의절도사 맹원양이 참전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의가 하양의 오중윤과 함께 하북 번진들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었다고 한다.[45]

---

40) 森部豊, 「安史の亂の終熄と昭義の成立」, 252쪽.
41) 『權德輿詩文集』 권47, 表疏, 「昭義軍事宜狀」, 上海古籍出版社, 2008, 751~752쪽.
42) 『《李相國論事集》校注』 권3, 「澤潞事宜」, 93쪽.
43) 森部豊, 「安史の亂の終熄と昭義の成立」, 259~260쪽 참조.
44) 『구당서』 권151, 맹원양전, 4063쪽; 『신당서』 권170, 맹원양전, 5171쪽 등.

6년 후인 원화 11년(816) 정월 헌종이 제2차 성덕 토벌을 명하자 소의도 참전하였다. 즉 앞선 원화 10년(815) 정월부터 헌종이 회서 토벌전을 전개할 때 성덕의 왕승종이 平盧節度使 李師道와 함께 토벌전을 방해하기 위해 같은 해(815) 6월 재상 武元衡을 암살하자 헌종이 회서 토벌의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듬해(816) 정월 河東·幽州·義武·橫海·魏博·昭義 6번진에게 왕승종 토벌을 명하였는데,[46] 그때 소의절도사는 郗士美였다.[47] 즉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에 의하면

> 6절도사 병사에게 나아가 토벌하게 하였는데, 대략 수십 만이었고 토지 수천 리를 둘러싸서 그 세력을 분산시키게 하였다. 하지만 營屯이 서로 떨어져 있고 명령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관망하였다. 홀로 소의의 치사미가 賊의 경계를 압박하였는데, 적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5958쪽).

라고 한다. 토벌군의 統帥가 임명되지 않아 명령이 통일되지 않고 군사들이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치사미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성덕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소의절도사 치사미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 먼저 원화 11년 2월 소의절도사 치사미가 성덕 병사를 격파하여 1천여 급을 참수하였다고 상주하고,[48]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

45) 『《李相國論事集》校注』 권3, 「澤潞事宜」, "伏望聖恩斷在不疑, 與[烏]重胤河陽, 足以賞逐從史效, 與[孟]元陽澤潞, 足以壓河北諸侯之勢"(94쪽).

46) 『唐大詔令集』 권119, 討伐上, 「討鎭州王承宗德音」, 商務印書館. 1959, 631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조, 7721쪽. 여기에는 전 해 11월 성덕을 토벌하게 한 振武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47) 吳廷燮 撰, 『唐方鎭年表』 1, 昭義, 481~482쪽.

48)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2월 조, 7721쪽.

> 諸軍이 왕승종을 토벌하면서 서로 관망하였지만, 홀로 소의절도사 치사미가 精兵을 이끌고 그 경계를 압박하여 2일 치사미가 왕승종 병사를 柏鄕에서 大破하여 1천여 인을 죽이고 항복받은 자 또한 그와 같았으며 3개의 보루를 만들어 백향을 포위하였다.

라고 한다.[49] 앞의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기사와 같은 내용이 보이는데, 백향은 성덕 관하 趙州의 속현이었다.[50] 하지만 이듬해(817) 3월 치사미의 군대는 백향에서 성덕에게 패하자 군영을 철수하여 귀환하였는데, 죽은 사졸 1천여 인이었다.[51] 같은 달 왕승종이 병사 2만을 보내 횡해 관하 景州 東光縣으로 들어가 白橋(즉 永濟渠를 건너는 다리) 길을 단절하였으나 횡해절도사 程權[52] (원래는 程執恭)[53] 이 제지할 수 없어 병사를 거느리고 滄州로 돌아갔다.[54] 胡三省은 해당 기사에 주를 달아 "[義武節度使] 渾鎬[55] 는 이미 패하였고, 치사미도 패하였으며 정권 또한 물러나 돌아간 것이다. 왕승종의 재주는 諸帥가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헌종의 제2차 성덕 토벌전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817) 5월 조를 보면 그 상황을 총괄하여

---

49)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816) 8월 조, 7724쪽;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11년 8월 조, "己未, 昭義軍節度使郗士美及王承宗戰于柏鄕, 敗之"(216쪽).

50)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北道, 趙州 조, 1500~1501쪽.

51)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816) 3월 조, 7732쪽;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3월 조, "昭義郗士美兵敗於柏鄕, 兵士死者千人"(459쪽).

52) 횡해는 조정에 대해 특별히 불순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번수를 계승하고 있었다. 즉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鎭政策」, 『중국고중세사연구』 58, 2020, 225쪽 참조.

53)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816) 3월 조, "賜程執恭名權"(7732쪽).

54)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3월 조 및 胡三省 주, 7732쪽.

55) 吳廷燮 撰, 『唐方鎭年表』 1, 義武, 505~506쪽.

> 여섯 번진이 왕승종을 토벌할 때 병사가 10여 만이었는데, 둘러싼 것이 수천 리이고 統帥가 없었다.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期約하여 통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 功이 없었고 천 리나 식량을 운반하면서 소·당나귀가 죽은 것이 10의 4~5였다(7734쪽).

라고 한다. 당시 할거 번진에 속한 유주절도사 劉總은 성덕의 深州 武强縣을 점령하였으나 병사를 이끌고 경계를 나간 것이 겨우 5리였고 머물러 주둔하면서 나아가지 않은 채 매월 度支錢 15만 緡을 지급받았다. 출전의 대가로 이른바 '식출계량'을 받으면서 실제 토벌에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56] 그 외 위박의 田弘正은 앞선 원화 7년(812) 10월 조정에 귀순한 상황에서[57] "왕승종이 叛하자 전홍정에게 조서를 내려 全師를 이끌고 경계를 압박하게 하니 그 병사를 [성덕 관하의 冀州] 南宮[縣][58]에서 격파하였다. 왕승종이 두렵고 달아날 길이 없어 전홍정에게 귀부하자 전홍정이 조정에 표를 올렸고 마침내 德·棣 2주를 헌상하며 사죄하고 두 아들을 인질로 보냈다"[59] 라고 한다. 단 그때 덕·체 2주를 헌상하였다는 것은 형식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당 2주를 바친 것은 회서가 토벌된 후인 원화 13년(818) 3월이었다.[60] 또 하동과 관련해서는 원화 11년(816) 2월[61] "조서를 내려 하동의 병사 5천을 발동하여 易定(즉 의무)으로 달려가게 하였

56)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224쪽.
57) 정병준, 「唐 憲宗의 藩鎭改革과 成德節度使 王承宗」, 200쪽.
58) 『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冀州 조, 1504쪽.
59) 『신당서』 권148, 전홍정전, 4783쪽.
60) 정병준, 「唐 憲宗의 藩鎭改革과 成德節度使 王承宗」, 209~211쪽. 또 『신당서』 권66, 方鎭表 3, 성덕, 원화 13년 조, "以德·棣二州隸橫海節度"(1849쪽); 同, 長慶 원년 조, "置深冀節度, 治深州, 尋罷, 復以深冀隸成德軍節度"(1850쪽)라고 하는 기록도 보인다.
61) 연월은 東洋文庫唐代史研究委員會 編, 『唐代詔勅目錄』, 東洋文庫, 1991, 1981, 407쪽 참조.

다"고 하고 또 이듬해(817) 정월 "조서를 내려 하동 병사 1천을 발동하여 의무군과 합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만,[62]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렇듯 제2차 성덕 토벌전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같은 달(5월) 헌종은 마침내 왕승종 토벌을 그만두고 회서 토벌에 집중하였다.[63]

비록 제2차 성덕 토벌전 역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최소한 소의가 조정으로 전향한 것만으로도 성덕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왕승종을 토벌할 때 앞선 덕종 시기에 할거 번진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四王의 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지만,[64] 이제 소의가 할거 번진의 반란 확대를 방지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 Ⅳ. 淮西·平盧 토평과 烏重胤의 활약

헌종의 번진개혁에서 소의 평정의 의의는 앞에서 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소의의 인적 자원이 이후 번진개혁에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겠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양절도사에 임명된 오중윤이었다.

원화 10년(815) 정월 헌종이 16번진에게 회서를 토벌하게 하였지만,

62) 『冊府元龜』 권122, 帝王部, 征討2, 원화 2(11?)년 및 원화 12년 정월 조, 中華書局, 1467~1468쪽.

63)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4월 조, "丙子, 詔, 權罷河北行營, 專討淮蔡"(459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5월 조, "丙子, 罷河北行營, 各使還鎭"(7734쪽). 단 4월에는 병자일이 없고 5월 병자일은 17일이다.

64) 정병준, 「唐 憲宗의 藩鎭改革과 成德節度使 王承宗」, 196쪽;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伐과 平盧節度使 李師道」,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698쪽.

가장 큰 활약을 한 장수는 6인이었다.[65] 즉 韓愈의 「平淮西碑」에 의하면

> 또 말하길 ① "[李]光顔아, 너를 陳許의 帥로 삼으니 河東·魏博·部陽 3軍으로 행군에 있는[在行] 자는 네가 모두 지휘하라"고 하고, ② "[烏]重胤아, 너는 원래 河陽·懷를 관할하였는데, 지금 汝[州]를 더해주니 朔方·義成·陝·益·鳳翔·鄜延·寧慶 7軍으로 행군에 있는 자는 네가 모두 지휘하라"고 하고, ③ "[韓]弘아, 너는 병사 1만 2천을 아들 한공무에게 맡겨 나아가 토벌하게 하라"고 하고, ④ "[李]文通아, 너는 壽를 지키고 있는데, 宣武·淮南·宣歙·浙西·徐泗 5軍으로 壽에 행군하는 자는 네가 모두 지휘하라"고 하고, ⑤ "[李]道古야, 너는 鄂岳을 觀察하도록 하라"고 하고, ⑥ "[李]愬야, 너는 唐鄧隨를 帥하도록 하고, 각각 병사를 거느리고 進戰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⑦ "[裴]度야, 너는 御史[中丞]을 맡아 가서 군대를 시찰하도록 해라"고 하고, 또 "배도야 오직 네가 나와 뜻이 같으니 너는 재상이 되어 명을 받들고 받들지 않는 자에게 상벌을 내리도록 하라"고 하고, ⑧ "한홍아, 너는 부절을 가지고 諸軍을 都統하라"고 하였다.[66]

라고 하여 헌종이 6인 등에게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인다. 그 시점은 원화 11년(816) 12월 이소가 당등수절도사에 임명된 이후인데, 이광안은 忠武節度使, 오중윤은 河陽三城節度使, 한홍은 宣武節度使 겸 行營都統, 이문통은 壽州團練使, 이도고는 岳鄂觀察使에 임명되어 있었다.[67] 또 배도가 어사중승에 임명된 것은 원화 9년 11월이었고[68] 재상에 임명된 것은 원화 10년 6월이었다.[69]

---

65) 정병준, 「韓愈의 '平淮西碑' 검토」, 『중국사연구』 139, 2022, 11~19쪽.
66) 『韓昌黎文集校注』 권7, 碑誌, 「平淮西碑」, 478쪽.
67) 정병준, 「韓愈의 '平淮西碑' 검토」, 12~13쪽.
68)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9년 11월 조, 451쪽.

다수의 장수 가운데 6인이 가장 큰 활약을 하였다는 것은 회서가 평정된 후 사여된 관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평회서비」에 의하면

> 공로에 따라 관작을 주었는데, 한홍에게 侍中을 더해주고, 이소를 左僕射로 삼아 山南東道를 帥하게 하고, 이광안·오중윤에게 모두 司空을 더해주고, 한공무는 散騎常侍로서 鄜坊丹延을 帥하게 하고, 이도고를 大夫로 승진시키고, 이문통에게 散騎常侍를 더해주었으며, 승상 배도가 京師에 조알하자 晉國公으로 進封하고 金紫光祿大夫로 進階하며 이전과 같이 재상에 있게 하였다(481쪽).

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11월 조에서는

> 회서를 평정한 공적을 헤아려 隨唐節度使·檢校左散騎常侍 이소를 檢校尙書左僕射·襄州刺史·充山南東道節度·襄鄧隨唐復郢均房等州觀察等使로 삼고, 선무군절도사 한홍에게 兼侍中을 더해주고, 충무군절도사 이광안과 하양절도사 오중윤을 모두 檢校司空으로 삼았다. 宣武軍都虞候 韓公武(즉 한홍의 아들)를 檢校左散騎常侍·鄜州刺史·鄜坊丹延節度使로 삼고, 위박행영병마사 전포를 右金吾衛將軍로 삼았는데, 모두 賊을 깨뜨린 공로에 대해 상을 준 것이다(461~462쪽).

라고 하여 이문통·이도고가 아닌 한공무·전포가 언급되어 있지만, 오중윤은 앞의 「평회서비」와 마찬가지로 이광안과 함께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70] 또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1월 조에서도 "이소를 산남동

69) 『신당서』 권173, 배도전, 5210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6월 조, 7714쪽.

도절도사에 임명하며 涼國公이라는 작위를 하사하고, 한홍에게 겸시중을 더해주고, 이광안과 오중윤 등을 각각 차등있게 승진시켰다"(7745~7746쪽)라고 한다.

오중윤이 회서 토벌전에서 수행한 활약을 구체적으로 보자. 오중윤이 회주자사·하양절도사에 임명된 것은 원화 5년(810) 4월이지만, 원화 9년(814) 윤8월 회서절도사 吳少陽이 사망하고 아들 오원제가 번진을 계승하자 같은 달 헌종은 오중윤을 河陽·懷·汝節度使에 임명하면서 치소를 회주에서 회서와 인접한 여주로 옮겨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였다. 이어 9월 헌종은 회서 주변 번진의 장수들을 대거 재배치하여 ① 洺州刺史 이광안을 陳州刺史·忠武都知兵馬使, ② 泗州刺史 令狐通을 壽州防禦使, ③ 산남동도절도사 袁滋를 荊南節度使, ④ 형남절도사 嚴綬를 산남동도절도사로 삼았다.[71]

그 상황에서 원화 10년(815) 정월 헌종이 충무절도사 이광안과 하양회여절도사 오중윤 등 16번진에게 오원제 토벌의 명을 내렸던 것이다.[72] 하지만 회서 토벌은 그다지 성과를 올리지 못하던 가운데 이듬해(816) 정월 헌종이 6번진에게 성덕의 왕승종까지 토벌하게 한 것은 Ⅲ장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이광안과 오중윤은 요지인 凌雲柵에서 회서군과 싸워 이겨 수급 3천을 베고 5월에도 수급 2천을 베었으며, 9월 마침내 능운책을 함락시켰다.[73]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나마 당군이 올린

70)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1월 조에는 "以李愬爲山南東道節度使, 賜爵涼國公, 加韓弘兼侍中, 李光顔·烏重胤等各遷官有差"(7745~7746쪽)라고만 보인다.

71) 『자치통감』 권239, 원화 9년 윤8월 및 9월 조, 7706쪽.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200쪽 참조.

72)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208쪽. 이광안이 충무절도사에 임명된 것은 원화 9년 10월이었다.

73)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217~219쪽.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해(816) 12월 李愬가 唐隨鄧節度使·鄧州刺史에 임명된 후 형세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듬해(817) 2월 이소가 회서를 습격하기 위해 조정에 증원군을 요청하자 昭義·河中·鄜坊의 步騎 2천을 보내주었다.[74] 소의절도사 치사미[75]는 회서 방면으로도 군대를 보낸 것이 되는데, 회서로 보내진 소의 병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다.

원화 12년(817) 4월 회서 蔡州의 郾城縣令 董昌齡과 守將 鄧懷金이 이광안에게 항복하자 오원제가 두려움을 느껴[76] 近親 및 채주성을 지키는 병사를 모두 실세 장수인 董重質에게 주어 당군을 막게 하였다.[77] 『구당서』 권145, 오원제전에서는 그 전후 상황을 기술하여

> [3월] 이소의 군대가 경계를 압박하여 賊의 文城柵을 함락시키며 柵將 吳秀琳을 생포하고[78] 또 賊將 李祐를 사로잡았으며,[79] [같은 해 4월] 이광안 또한 적의 언성을 함락시켰다. 오원제가 비로소 두려워하며 左右 및 성을 지키는 병사를 모두 내어 동중질에게 예속시켜 이광안과 오중윤을 막게 하였다" (3950쪽)

74)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2월 조, 7730쪽. 한편 『구당서』 권133, 이소전, "詔河中·鄜坊騎兵二千人益之"(3678쪽); 『책부원구』 권367, 將帥部, 機略7, 이소조, "詔以河中·鄜坊騎士三千以益之"(4367쪽)라는 것도 보이지만, 『자치통감』의 기사는 다른 문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75) 吳廷燮 撰, 『唐方鎭年表』 1, 昭義, 482쪽 참조.

76)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4월 조, 7733쪽;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5월 조, 459쪽.

77) 『구당서』 권161, 동중질전, 4227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4월 조, 7733쪽.

78)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3월 조, "賊將吳秀琳以文城柵兵三千降李愬"(459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3월 조, "吳秀琳以文城柵降于李愬. ……"(7732쪽).

79) 이우가 사로잡힌 것은 5월이었다(『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5월 조, 7735~7736쪽).

라고 하고, 『구당서』 권133, 이소전에서는 "진허절도사 이광안은 용맹이 諸軍을 덮었는데, 적이 정예 병사를 모두 거두어 이광안에게 저항하였다. 이로 인해 이소는 적이 대비하지 않은 틈을 타고 채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3680쪽)라고 한다. 이광안이 이소에게 채주를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해(817) 7월 재상 배도가 彰義(즉 회서)節度使·淮西宣慰招討處置使에 임명되어 파견되자[80] 8월 이광안과 오중윤은 공을 뺏길까 우려하여 서둘러 회서 병사와 싸웠으나 賈店에서 패배하였다.[81]

이렇게 보면 오중윤과 이광안은 따로 싸운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양자가 함께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구당서』 권161, 오중윤전에 의하면

> 때마침 淮蔡를 토벌하였는데, 오중윤에게 경계를 압박하게 하고 또 汝州를 할양하여 河陽에 예속시켰다. 王師가 회서를 토벌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오중윤과 이광안이 기각지세로 호응하면서 大小 100여 차례 싸워 오원제를 주살하기에 이르렀다. 곧 檢校尙書右僕射가 더해지고 사공으로 轉하였다. 蔡의 장수 李端이 澱河로 와서 오중윤에게 항복하였다(4223쪽).

라고 하고, 『신당서』 권171, 오중윤전에서도 "황제가 회채를 토벌할 때 조서를 내려 오중윤에게 병사를 이끌고 賊의 경계를 압박하게 하고 여주를 할양하여 그 군대에 예속시켜 이광안과 서로 기각을 이루게 하였다. 대소 100여 차례 싸웠으며 무릇 3년이 지나 賊이 평정되었고 두 번 승진하여 검교사공이 되고 邠國公으로 진봉되었다"(5187쪽)라고 한다. 아마도 이

80)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7월 조, 460쪽;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12년 7월 조, 216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7월 조, 7737쪽.

81) 『구당서』 권170, 배도전, 4418쪽;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12년 8월 조, 217쪽; 『책부원구』 권443, 將帥部, 敗▨3, 李師古 조, 5262쪽.

광안이 이소에게 채주를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때도 오중윤이 나름의 공헌을 하였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이광안과 오중윤이 토벌의 공으로 나란히 같은 관직을 수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회서 토벌전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구당서』 권145, 오원제전에 보이는 다음 기사이다.

> 陰山府 沙陀의 날랜 기병[驍騎]과 邯鄲의 용맹한 병졸[勇卒]을 얻고 이광안·오중윤이 분발하고 丞相(즉 배도)이 직접 통솔하여 諸將이 주저하고 관망하는 마음을 제거하니 마침내 元惡을 생포하였다(3951쪽).

즉 음산부의 사타 기병과 한단 용졸을 얻은 것이 회서 토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한단 용졸'에 대해 杜立暉·郝良眞은 원화 12년(817) 2월 이소가 헌종에게 요청하여 지원받은 소의 병사로 보고 비록 그 숫자는 적었으나 매우 용맹하였기 때문에 이소가 오원제를 습격할 때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았다.[82] 이에 대해 任乃宏은 원화 9년(814) 9월 이광안이 명주자사에서 충무도지병마사로 옮길 때 수종한 步卒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83] 즉 ① 許太淸이라는 사람의 묘지인 「大唐昭義軍故節度軍前遊奕副使·戡黎府折衝·試太僕卿·潁川郡許府君幷夫人太原王氏墓誌銘幷序」에 "근래에 회서가 王庭에 賓하지 않자 府君은 軍이 上騎에 속해 君을 도우면서 험하고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84] 라고 하는 것은 절도사가 번진을 옮길 때 다수의 병사들이 함께 따라갔듯이[85] 허태청도 이광안을 따라 명주에서 충무로 가서 회서 토

82) 杜立暉·郝良眞, 「唐許太淸及夫人墓誌銘考釋」, 『文物春秋』 2006-1, 42쪽.
83) 任乃宏, 「"邯鄲勇卒"考 -以永年出土唐代墓誌爲中心」, 『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 2014-2, 16~18쪽.
84) 杜立暉·郝良眞, 「唐許太淸及夫人墓誌銘考釋」, 38~39쪽.

벌에 참여한 것을 말하고, ② 명주의 臨洺과 邯鄲[86]은 인접하여 서로 代稱하기도 하였고, ③ 임명현에 주둔한 軍將 가운데 한단 사람이 존재하고, ③ 명주에 주둔하는 병사는 潞州에 적관을 둔 官健이 많았는데, ④ 潞州 步卒은 勁悍한 것으로 유명하였던 것을 들고 있다. 즉 한단 용졸이란 이광안 휘하의 勁悍한 潞州의 보졸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한편 森部豊은 한단 병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소의의 병졸에 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덕종 정원 10년(794) 7월 소의의 명주자사 元誼가 자·형·명 3주를 하나의 번진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하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정원 12년(796) 정월 무리들과 함께 위박절도사 田緒에게 망명하였는데, 이 난은 위박과 공모하여 일으킨 것일 수 있다고 한다. 또 소의의 정예병사가 대부분 자·형·명 3주 사람이었던 것을 지적하며 그 3주는 원래 騎射에 능한 安祿山·史思明의 군대에 속한 相衛節度使 관할인 탓에 反唐的 분위기가 잔존하였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고 심지어 안사의 옛 무리가 원의를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고 노종사도 그 원의와 상통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한다.[87] 말하자면 소의는 기사에 능한 안사 반란군의 유풍이 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일찍이 日野開三郎은 "소의가 太行山系의 산악중첩 지대에 위치하여 하북 병력의 중심을 이루는 기병의 운영이 곤란하고 또 寶應 원년 이래 30년을 계속하여 번수가 된 李抱玉·李抱眞 형제의 보병강화책에 의해 천하 최강이라는 보병의 守備라는 것이 맞물려 그 임무인 하북 방면을 제압하는 작용을 하였

85) 任乃宏은 원화 14년 이광안이 진허(충무)의 6천 인을 데리고 간 것을 예로 들고 있다(「"邯鄲勇卒"考」, 17쪽).

86) 『자치통감』 권226, 建中 2년(781) 5월 조의 호삼성 주, "至唐志則臨洺縣屬洺州, 邯鄲縣屬磁州, 蓋邯鄲縣必復置於唐世, 與臨洺各爲一縣, 史逸其置縣之歲月也. …… 九域志, 邯鄲縣在磁州東北七十里"(7300쪽). 또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240쪽 참조.

87) 森部豊, 「昭義を通して見た唐朝と河朔三鎭との關係」, 271~272쪽, 274쪽.

다"[88] 라고 하였다.

모두 소의 병사는 매우 강하고 용맹하였다는 것이지만, 쟁점이 되는 것은 회서 토벌에 참여한 소의 병사가 과연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가이다. 여기서 '陰山府 沙陀의 날랜 기병'의 경우를 보면 "이듬해 오원제를 토벌할 때 또 [사타족 수령인] [朱邪]執宜에게 조서를 내려 이광안에게 예속시키니 時曲에서 蔡人을 격파하고 능운책을 함락시켰다. 오원제가 평정되자 檢校刑部尙書에 제수되고 여전히 이광안 군대에 예속되었다"[89] 고 한다. 또 사타 기병을 이광안에게 예속시킨 시점에 대해서는 "황제가 [원화 11년(816) 7월과 원화 12년(817) 정월 각각] 高霞寓·袁滋 등을 문책하여 파직시키자 諸將이 사력을 다하였다. 조서를 내려 사타의 사납고 용감한 기병에게 당군을 구원하게 하고 [원화 12년 7월] 배도를 창의절도·申光蔡四面行營招撫使에 임명하였다"[90] 라고 하여 이소가 당수등절도사에 임명된 원화 11년 12월 이후라고 한다.[91] 다만 이광안이 명주자사에서 충무도지병마사로 옮길 때도 절도사의 移鎭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을 수종하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즉 자사나 도지병마사 등급에서도 병사들을 수종하였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서로 파견된 '소의 용졸'은 문헌 기록에 보이는 대로 일단 이소의 지휘를 받은 치사미 파견의 병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헌종은 원화 12년(817) 10월 회서를 멸망시킨 이듬해(818) 7월 宣武·魏博·義成·武寧·橫海 5번진에게 평로의 이사도를 토벌하게 하였다. 이들 번진은 모두 평로와 인접한 번진으로 회서 토벌 때 외지 병사인 이른바

88)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100쪽.
89) 『신당서』 권218, 사타전, 6155쪽. 자세한 것은 山下將司, 「唐の「元和中興」におけるチュルク軍團」, 『東洋史研究』 72-4, 2014, 8~11쪽 참조.
90) 『신당서』 권214, 오원제전, 6007쪽.
91)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239~240쪽.

'客軍'을 많이 동원하였던 것과는 달랐다.[92] 당시 오중윤은 회주자사·하양절도사로 있었다. 곧이어 헌종은 토벌군을 재정비하기 위해 몇 명의 절도사를 바꾸었는데, 즉 같은 해 10월 左金吾衛大將軍 薛平을 의성절도사에 임명하고 의성의 이광안을 충무절도사에 임명한 뒤 11월 오중윤을 橫海節度·滄景德隸觀察等使·滄州刺史에 임명하였다.[93] 이후에도 이광안은 토벌전을 수행하는 것이 보이지만,[94] 오중윤이 공을 세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먼저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11월 조를 보면

> 임인(22일) 하양절도사 오중윤을 횡해절도사에 임명하였다. 정미(27일) 華州刺史 令狐楚를 하양절도사에 임명하였다. 오중윤이 하양의 精兵 3천을 데리고 鎭으로 가는데, 하양 병사들이 鄕里를 떠나길 원하지 않아 中道에서 흩어져 돌아가고 또 감히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북쪽에 주둔하며 크게 약탈하려고 하였다. 마침 영호초가 이르러 單騎로 나가 위로하며 어루만져 주니 함께 돌아갔다(7755쪽).

라고 하여 移鎭하던 중에 수종하던 병사들이 흩어져 하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오중윤이 횡해에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즉 같은 책, 원화 14년(819) 정월 조에 의하면

> 滄州刺史 李宗奭이 횡해절도사 鄭權[95]과 화합하지 못해 그 節制를 거

92) 정병준, 「平盧節度使 李師道의 敗亡과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67, 2023, 115~116쪽.
93)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3년 10월 및 11월 조, 464~465쪽.
94)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199쪽.
95) 吳廷燮 撰, 『唐方鎭年表』 1, 義昌, 528쪽에 의하면 원화 13년(818) 3월 鄭權이 程權을 대신하여 횡해절도사에 임명되었다.

> 부하였다. 정권이 이를 상주하자 황제가 中使를 보내 불러들이자 이종석이 그 軍中에게 자기를 억류시키게 하고 表를 올려 난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주를 떠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오중윤에게 정권을 대신하게 하자 將吏들이 두려워서 이종석을 쫓아냈다. 이종석이 京師를 달아나자 신축(22일) 獨柳 아래에서 참수하였다(7760쪽).

라고 한다. 이로 보면 오중윤이 횡해에 도착한 것은 원화 14년 정월 22일 무렵 이후이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9일 평로의 都將 劉悟가 이사도를 참살하고 위박의 전홍정에게 항복하면서 토벌전이 종결되었다.[96] 말하자면 오중윤이 횡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사도가 멸망하여 참전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오중윤은 이사도가 멸망한 직후인 원화 14년(819) 3월 병제 개혁을 建言한 것으로 유명하다. 즉 그는 "河朔이 능히 朝命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자사가 권한을 잃고 鎭將이 군대를 거느리고 능히 권세를 행사한 때문이다. 자사에게 직권을 가지게 한다면 大帥가 비록 안녹산·사사명과 같이 간악하다고 해도 능히 1주에 의거하여 叛할 수 있겠는가? 신이 관할하는 3주는 곧바로 자사에게 직권을 돌려주어 각각 그 병사를 관장하게 하였다"[97] 라고 하니 4월 헌종이 이에 따랐다.[98] 이후 대부분의 번진이 관하 주에 주둔하는 鎭兵의 지휘권을 자사에게 넘김에 따라[99] 번

96)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209~210쪽.
97) 『신당서』 권171, 오중윤전, 5187~5188쪽.
98) 『자치통감』 권241, 원화 14년 3월 및 4월 조, 7768쪽; 『구당서』 권15, 헌종본기 하, 원화 14년 4월 조, 467쪽; 『唐會要』 권78, 諸使雜錄上, 원화 14년 2월(4월?) 및 8월 조, 上海古籍出版社, 1991, 1705쪽; 『책부원구』 권60, 帝王部, 立制度1, 676쪽.
99) 日野開三郎, 「唐代藩鎭の跋扈と鎭將」,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第1卷, 三一書房, 1980, 471~475쪽;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외 저, 임대희 역, 『중

진체제가 안정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 또한 헌종이 소의를 평정하여 얻은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제1차 왕승종 토벌은 성공하지 못하고 원화 5년(819) 7월 그만두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불온한 태도를 보이던 소의의 노종사를 포획한 것이다. 노종사는 소의절도사가 된 후 점점 교만해져 왕승종과 위박절도사 田緖와 몰래 연계하면서 그들을 모방하려고 하다가 당군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때 소의의 장수 烏重胤이 큰 역할을 하였고 그 공으로 河陽節度使에 임명되었다.

원화 11년(816) 정월 헌종은 河東·幽州·義武·橫海·魏博·昭義 6번진에게 제2차 성덕 토벌을 명하였으나 이번에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때 소의절도사 郗士美는 홀로 적극적으로 성덕을 공격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앞서 할거 번진들이 연대하여 일으킨 '四王의 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소의가 그러한 반란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원화 10년(815) 정월 헌종이 16번진에게 회서를 토벌하게 하여 마침내 원화 12년(817) 10월 평정하였는데, 하양절도사 오중윤은 세 번째로 큰 공

---

국의 역사(수당오대)』, 혜안, 2001, 290~291쪽; 누노메 조후 외 저, 임대희 외 역,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 2005, 325쪽; 張達志 저, 邢晨 역, 「당 후기 번진과 주의 관계」, 『동국사학』 72, 2021, 511~513쪽 등.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2, 2003, 193~194쪽; 정병준, 「唐 憲宗 초기 淮西 藩鎭의 地域割據 -吳少誠의 행동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35, 2021, 64~69쪽.

을 세웠다. 또 그때 치사미가 파견한 '邯鄲 勇卒'로 불린 소의의 병졸이 큰 공을 세웠다. 회서를 멸망시킨 이듬해인 원화 13년(818) 7월 헌종은 宣武·魏博·義成·武寧·橫海 5번진에게 평로의 이사도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오중윤은 같은 해 11월 횡해절도사에 임명되었다. 다만 그때 오중윤은 공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횡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듬해(819) 2월 이사도가 갑자기 패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중윤은 이사도가 멸망한 직후 번진의 州에 주둔하는 鎭兵의 지휘권을 자사에게 넘기도록 주청하여 수용됨으로써 번진체제가 안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또한 헌종이 소의를 평정하여 얻은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23.03.07. 투고 / 2023.03.28. 심사완료 / 2023.04.03. 게재확정)

[Abstract]

## The Significance of Suppress of the Zhaoyi Province under Tang Xianzong Reigns

Cheong, Byung-jun

The Zhaoyi was the ambilateral Province. On the one hand basing on the geographical conditions and brave soldiers it attempted to perform the role of the Autonomous Provinces, but on the other, receiving command of government it kept in check them. During the Reform of the Provinces under Tang Xianzong, Zhaoyi Military Commissioner Lu Congshi accomplished the former, but he was removed by the conspiracy of the government forces. Then, the Zhaoyi carried out compliantly many roles in the Reform of the Provinces under Tang Xianzong. But notable is the fact that individual cases were interlocked within the Tang Xianzong's reform. Namely, his reform was prompted individually and connectedly, and suppress of the Zhaoyi Province was good examples of the latter.

☐ Keyword

Tang Xianzong, Zhaoyi, Lu Congshi, Chengde, Huaixi

[참고문헌]

1. 사료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모두 中華書局標點本).

『韓昌黎文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87.

『《李相國論事集》校注』, 華中科技大學出版社, 2015.

『權德輿詩文集』, 上海古籍出版社, 2008.

『樊川文集校注』, 巴蜀書社, 2007.

『唐會要』, 上海古籍出版社, 1991.

『唐大詔令集』, 商務印書館, 1959.

『冊府元龜』, 中華書局, 1960.

吳廷燮 撰, 『唐方鎭年表』, 中華書局, 1980.

東洋文庫唐代史研究委員會 編, 『唐代詔勅目錄』, 東洋文庫, 1991.

2. 연구논저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2, 2003.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鎭政策」, 『중국고중세사연구』 58, 2020.

정병준, 「唐 憲宗 초기 淮西 藩鎭의 地域割據 -吳少誠의 행동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35, 2021.

정병준, 「韓愈의 '平淮西碑' 검토」, 『중국사연구』 139, 2022.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66, 2022.

정병준, 「唐 憲宗의 藩鎭改革과 成德節度使 王承宗」, 『동국사학』 75, 2022.

정병준, 「平盧節度使 李師道의 敗亡과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67, 2023.

杜立暉·郝良眞, 「唐許太淸及夫人墓誌銘考釋」, 『文物春秋』 2006-1.

任乃宏, 「"邯鄲勇卒"考 -以永年出土唐代墓誌爲中心」, 『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 2014-2.

張達志 저, 邢晨 역, 「당 후기 번진과 주의 관계」, 『동국사학』 72, 2021.

張正田, 『「中原」邊緣 : 唐代昭義軍研究』, 稻鄕出版社, 2007.

陳翔, 「唐代後期澤潞鎭軍事地位的變化」, 『中國歷史地理論叢』 2008-3.

陳翔, 「唐代澤潞鎭建置及擴建考」, 『江西社會科學』 2013-2.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외 저, 임대희 역,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혜안, 2001.

누노메 조후 외 저, 임대희 외 역,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 2005.

伊藤宏明, 「唐五代の都將に關する覺書(上)」,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 38, 1992.

末田修一, 「唐代藩鎭の出界糧について」, 『鈴木俊教授還曆記念東洋史論叢』, 大安, 1964.

山下將司, 「唐の「元和中興」におけるチュルク軍團」, 『東洋史研究』 72-4, 2014.

森部豊, 「安史の亂の終熄と昭義の成立」, 『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歷史的展開』, 關西大學出版部, 2010.

森部豊, 「昭義を通して見た唐朝と河朔三鎭との關係」(上同).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唐代藩鎭の成立と盛衰』(『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第1卷, 三一書房, 1980).

日野開三郎, 「唐代藩鎭の跋扈と鎭將」,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第1卷, 三一書房, 1980.

찰스 피터슨, 「중흥의 완성 : 헌종과 번진」,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위진수당사학회 역, 『당대사의 조명』, 아르케, 1999.